

일본 OJT 단기인턴 에세이

아주대학교

201521931 이명학

Intro

이번 OJT 일본 단기 인턴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3박 4일간 '다이코'라는 토탈 엔지니어링 기업의 동경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부에서 실시되었다. OJT란 On Job Training의 약자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받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시키기 보다는, 선배들의 업무 등을 보조하도록 하여, 일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인턴은 이미 일본 회사에 취업한 한국인 선배들이 받는 연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본래의 OJT의 정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3박 4일간 매일 일본 회사에 출근하면서, 일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전에 일본에 여행으로 3회정도 갔다 와본 적이 있어서 관광지로서의 일본은 조금 익숙했지만, 일본에서의 직장생활을 해본다는 것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본 에세이에서는 3박 4일 동안의 회사 생활과 교육 프로그램, 보고 느낀 것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 째날

아침에 이번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신, 박성빈 교수님과 회사 근처에 있는 칸다역에서 만나, 동행하여, 회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인턴간 동안 우리를 담당하여 주실 와타나베상과, 야스다상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 먼저 와타나베상으로부터 '주식회사 다이코'가 어떠한 회사인지 소개 받았다. '주식회사 다이코'는 처음에 히로시마 지방에서 설계 전문 회사로 시작해,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게 된 직원 800명 규모의 토탈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인턴을 진행한 곳은 이러한 '다이코' 그룹의 동경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부였다.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회사에서 처리를 하거나, 다른 기업에 IT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기업의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 등을 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다이코' 주식회사의 소개를 들으면서, 엔지니어

링이라고 해도,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회사 소개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 잠시 와타나베상과 다이코 그룹과 일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와타나베상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한국보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회사에 들어가면 출근도 일찍 하고, 야근도 많이 하는데 반하여, 일본회사는 출근 시간도 더 여유롭고, 야근을 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점심식사를 하고, 먼저 취업한 한국인 선배들과 함께 '언어 기술'이라는 것에 대하여, 교육받았다. '언어 기술'이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더 잘 묘사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만일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본인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언어기술'을 사용한다면 더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날

아침부터 한국인 선배들과 함께, 야스다상이 내준 프로그래밍 과제를 진행하였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자에게 섭씨 또는 화씨의 온도를 입력 받아, 입력 받은 온도가 섭씨의 온도라면, 화씨의 온도로, 화씨의 온도라면, 섭씨의 온도로 바꾸어 주는 프로그램을 코딩 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학교수업에서 '맷랩'이라는 계산 전용 프로그래밍은 사용해봤지만, 이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파이썬'이 조금 숙달이 되고, 함께 이번 인턴에 참가한 문승현 학생의 도움으로 마침내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일본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자마자 오랜 기간, 사내교육을 받게 하고, 이후로도 다양한 사내교육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공에 따라 입사 신청이 제한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비교적 전공에 구애 받지 않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

생이 IT기업에 취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셋째날

오전에는 야스다상이 '일본에서의 서비스'에 대하여 강의를 하셨다. 여기서 서비스는 단순히 손님을 응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의 개발이나,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도 포함한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일본에서는 고객이 서비스에 기대하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일본지하철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나, 정밀기계 기업이 고객의 요구대로, 극한의 경지까지 부품을 정밀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오후에는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발표과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넷째날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이번 OJT 인턴에서 배운 것',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10년 후의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발표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일단 한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노트에 적어놓고, 이를 일본어로 옮겨 보았다. 그리고 일본어의 내용 중 키워드들을 정리하여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다. 원래는 슬라이드의 단어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없어, 남는 시간 동안 대본을 만들었다. 발표는 야스다상과 와타나베상, 그리고 일본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할 때에는 거의 대본을 읽어가듯 하며 하였는데, 발표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탓인지, 조금 더듬거리기도 하였다. 발표가 끝난 이후, 피드백을 받았는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호평도 많이 있었다. 특히, PPT의 형식이 간결하여, 알아보기 쉬웠다는 평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과제를 마지막으로, 이번 OJT 인턴을 마쳤다.

느낀 점

정장 차림으로 대기업 사무실이 준비한 동경 시내를 직장인들과 함께 출근하는 것은 여행할 때는 느껴볼 수 없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일본에 취업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OJT 인턴을 통해서 일본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일본의 기업 문화나 예절 등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일본은 저 출산의 영향으로 젊은 노동자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과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공이 이공계열이건, 인문사회 계열이건 관계없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